

게리 미더스 박사, 고린도전서 11강, 클로에의 집 에서 온 구전 소식에 대한 바울의 응답 , 2부 , 고린도전서 1:1-2:5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11강, 클로에의 집에서 온 구전 성명에 대한 바울의 응답, 1장 1
절에서 2장 5절입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4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강의 바로 전인 10번 영상 강의에서, 11번 영상
강의에서, 여전히 노트가 가득 찬 7번 영상 강의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교사와 학생이라는 전체적인 생각, 로마 도시 회랑의 주요 부분이었던
연설가들의 사실, 법 체계, 지위와 존엄성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그것을
얻거나 잃는 것, 그리고 고린도 내부의 분열이라는 문제의 근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로마 고린도의 기저에 있는 흐름을 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세속적인 방식,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 방식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언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 즉 정신에서 삶의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적 과정이 아니라 이성적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문화는 마음을 감정의 영역에 두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대체로 이성적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감정적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그의 주장에 대해 생각하고 그 주장에 복종하고, 그 주장을 소유하고, 그 주장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신적 과정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Notepad 7의 55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훑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통적인 개요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전체에 걸쳐 문단별로 흐르는 방식입니다. Talbert의 카이아스틱 개요를 봤는데, 그는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서 역순으로 답합니다. 그 개요는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는 합법적인 그림인데, 2장이 바로 이 중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단의 흐름에 약간 다른 논리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른 논리는 아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인들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제가 보는 논리입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개요에서 우리는 바울이 분열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클로에의 집안은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이러한 구분은 이 전체 아이디어 아래에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읽는 동안, 당신은 세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육신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또 다른 은유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분열은 로마 코린트의 세계관을 따르고 삶과 사는 법을 이해한 다음 기독교 관점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분열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인간 메신저를 놓고 분열됩니다.

일부는 바울이고, 일부는 아폴로인데, 우리 본문이 10절에서 17절에서 말했듯이요. 하지만 교사들 간의 경쟁심이 로마 문화가 운영되는 방식의

일부라는 생각을 붙잡아주세요. 무엇보다도, 이 경쟁심의 문제, 이 분열의 문제 때문에 연합에 대한 호소가 있습니다.

성경은 1:10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여러분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생각으로 합일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으로 합일하십시오.

친구들이여, 통일은 우선 당의 통일이 아니라 정신적 통일이며, 감정적 통일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고, 같은 관점과 같은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통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 영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통일과 다양성입니다. 통일은 다양성을 다루는 능력이지만, 다양성은 사도들이 정한 중심 핵심 이해에서 너무 멀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매우 강하게 호소할 때, 그가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바울이 가족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가 이 부하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일부입니다. Fitzmeyer는 이 편지, 또는 적어도 이 부분을 헬레니즘적 훈계서라고 부르고, 그는 호소라는 단어를 근거로 그렇게 합니다. 호소는 훈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훈계를 내립니다, 오래된 버전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nouthetic한 것입니다. nouthetic이라는 단어는 권고하다, 호소하다, 간청하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편지입니다. 그는 바울이 그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너의 행동이 너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항상 다루는 방식입니다. 슬래시가 하는 일 이 아니라 하이픈이 하는 일입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인식론과 공리론. 인식론은 지식의 근원, 본질, 타당성입니다. 공리론은 관련된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당신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이 신학과 윤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6장인데 3장은 일종의 신학적 기초이고, 마지막 3장은 권고와 행동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12장이라면 6/6. 14장이라면 7/7. 거의 종교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고와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식이고, 결코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행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며,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의 일부를 뒤집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기독교는 감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따르면 감정적 근거가 아닌 이성적 근거입니다. 감정은 산물입니다. 결코 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초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들의 산물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삶에 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바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키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감정과 다른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행동의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특정 시점에서, 여러분이 해설을 따라 읽고 있다면, 피츠마이어가 이 훈계의 편지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사적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해설 66~67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된 수사적 기법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데, 고린도서의 일부인 이 호소 장르에서 우리는 작가가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적 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들의 귀는 단어에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그 점에서 많이 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 기운을 차리세요.

그것은 구전 문화권에서의 수사학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고린도전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 특정 텍스트에서 우리는 슬로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 기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큰 수사적 기법 중 하나는 슬로건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55페이지 하단에서 고린도전서의 흥미로운 특징은 슬로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건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그 교환에서 고린도인들의 격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말을 인용한 다음, 필요하다면 설명과 교정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는 인용문으로 맥락을 소개하는 여러 곳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용문은 아마도, 여러분이 주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이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인들이 말했을 것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아와서 그들을 바로잡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의 얼굴에 던졌을 구호였습니다.

폴은 그것을 네 번 사용합니다 .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따라서 이 슬로건 문제를 인식하세요 . 해설에서 지적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에 대한 작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폴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말한 다음,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또는 아마도 수정되어야 하는지 선언합니다. 피츠마이어는 다음 슬로건을 식별하고, 저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여기 노트에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거기서 넘어가기 전에,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argaret Mitchell은 훌륭한 학자이고, Garland가 그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연히 그 해설을 읽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슬로건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흉내 낸 수사학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칭하고 나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한 것 그대로인가, 아니면 바울이 그들이 말한 것을 말하고 나서 응답하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슬로건이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Margaret Mitchell이 훌륭한 신약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여러분에게 제공한 모든 저작물을 강력히 추천하고, 그녀는 고린도서에 대한 저작물을 썼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죠.

제가 차트를 쫓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페이지 번호가. 아래 55페이지에 ASV와 NIV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56페이지의 차트가 있습니다.

ASV는 왼쪽 열이고 NIV는 오른쪽 열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슬로건 중 하나는 6:12에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NIV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좋아요, 저에게 합법적인 모든 것에 대한 동등한 이해입니다. 너무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공식 번역과 기능적 또는 동적 번역을 볼 수 있습니다. 6:13, 배를 위한 고기와 배를 위한 고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모두 허무하게 하실 것입니다.

Fitzmeyer는 그것을 목록에 넣음으로써 그것이 슬로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의 얼굴에 던졌을 것입니다. NIV는 배를 위한 음식과 배는 음식을 위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둘 다 아주 가까워서 파괴할 것입니다. 8:1, 우리는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말했을 법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거의 같은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대답할 것입니다. 8-4절, 세상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NIV는 매우 가깝습니다. 8:5, 하나님의 많은 것과 주님의 많은 것이 있습니다. 번역에서도 매우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10:23, 여기서 우리는 6:12에서 본 것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며, 그들은 같은 번역을 사용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습니다.

15장,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루고 있던 문제 중 하나였고, 그는 돌아와서 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Fitzmeyer 가 취하지 않았지만 , 혼합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사람이고, 나는 아폴로의 사람이고, 나는 누구누구를 따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바울이 들어와서 그들을 인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1장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제시되는 부분에서는 더 설명적입니다. 반면에 다른 맥락에서는 맥락이 거의 슬로건에 의해 제한 되는데 , 그러면 분석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7:1은 슬로건인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NIV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NIV 2011입니다. 문맥에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NIV는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절의 번역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새로운 NIV는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8-8, 하지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 안 먹든, 우리가 최악이든 말입니다. 그 공식 언어는 두비 두비 입니다 . 기억하세요.

우리가 최악인가, 아니면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가? NIV에 의해 매끄럽게 표현되었지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주지 않는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쁘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것은 수사학의 일부이고, 바울과 청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의 수사적 본질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도 14장일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언급한, 14장에 여자가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서론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사적 기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사적 기법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4장에서는 풍자의 수사적 기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거의 유머러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호소 편지이고, 슬로건은 간청, 호소, 논쟁의 일부이며, 그것은 그 문학 장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보고. 보고는, 그것이 말했듯이, 클로에의 집안에서 이런 분열이 있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 게바, 바울로, 그리스도 등을 연습니다.

우리는 이미 3:3에서 설명한 대로, 당신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의 경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교사와 제자들의 경쟁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폴로의 제자들이 있고, 베드로의 제자들이 있고, 바울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지위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은 여러분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우리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그럼 13절 이하에서 57페이지 맨 위를 아주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주석을 주의하세요. 고린도인들이 아폴로를 강력하다고 보는 것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그의 웅변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어떤 면에서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서를 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폴로의 육체적 존재감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따르면 부족했지만 그는 강력한 웅변술을 가졌습니다.

그는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한번, 웅변술의 기술과 정확성에 대한 문화적 척도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잘못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상적인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저는 사역에서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성이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교활하고, 그것은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은유이고, 모든 사람이 오, 세상에, 얼마나 멋진지 말합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거나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압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말솜씨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당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당신은 그 모든 것에 열광할 수 있습니다. 글썬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못생긴 녀석이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사역 초기에 리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들은 당신의 발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리에 그것을 던진다. 아마도 그는 그것의 상처를 지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그의 살에 박힌 가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시력이 나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썬요, 그것은 돌로 쳐죽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키가 작고 대머리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물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권위 있는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는 말하기 전까지, 그가 쓰기 전까지는 인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제 인생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썼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은 바울의 진술과 씨름하다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서의 그 진술을 의역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바울이 말한 언어로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썼다고 말해야 한다면, 그는 바울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같은 맥락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나 떨어져 있고, 우리는 스스로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믿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자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웅변 문화에 비추어 세부 사항을 조사하면 고린도인들의 행동은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고린도전서의 번역에서 그것을 발견할 때, 당신은 오늘날 세속적인 것과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당신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당신의 문화적 관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는 여성이 화장을 너무 많이 하거나 보석을 너무 많이 착용하면 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성이 매우 비싼 옷을 입고 금반지와 금 목걸이와 같은 것으로 호사스럽게 차려입으면 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세상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생각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세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초반 장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마주칠 때 조심하세요. 그런데,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혜라는

단어는 1~4장에서 21번 사용되었고,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1번. 하지만 지혜라는 단어는 지역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똑똑하다는 뜻의 worldly wise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것과 함께합니다. 좋은 지혜가 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처럼 행동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반복은 의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지혜에 대해 뭔가 일어나고 있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해야지, 우리의 현재 문화적 환경에서 생각하도록 자란 방식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젖는 것을 느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화를 느낄까요? 아니요. 그러니, 당신이 그 생각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잠시라도 가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탐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에 대해 젖어 있어야 하는 방식에 대해 접촉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는 분열의 문제에 대한 수사학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수사적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바울은 책에서 텔버트가 당신을 위해 제시한 방식에 따라 대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었고, 이 처음 17절에서 이 인간 사자들과 이 인간 사자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분열되었습니다. 사자들과 메시지.

여기에는 호주의 훌륭한 성경 학자 레온 모리스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고린도 사람들 중 일부는 수사학과 철학 연구에 대한 전형적인 그리스인의 찬사와 일치하여 인간의 지혜와 웅변에 너무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말의 지혜로 설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급을 기억하세요. 로마 고린도의 맥락에서 말의 지혜는 그들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잘 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주의한 연설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연설가가 되어야 하지만, 세상의 의미와 같이 말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당신은 절대적으로 훌륭한 연설가, 영향력 있는 연설가, 인상적인 연설가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농담을 하는 코미디언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단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말로, 그것은 그의 사명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설교는 사람들을 설교자에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충실한 설교는 사람들이 인간적 장치에 대한 신뢰를 멈추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수사학에 의존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데, 이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영향을 미치려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정말 정교한 수사학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말을 사용합니다. 4장의 끝은 그것에 대한 훌륭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말하는 것인가요? 세속적인 지혜의 플랫폼, 그 맥락에서 말하는 플랫폼, 아니면 신의 말씀을 전하는 플랫폼.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공격적인 것은 메시지이지 메시지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메시지 자체가 공격적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세속적인 사고방식만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로마 주의, 또는 B 주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존재한다고 보고된 클로에의 집안의 분열 문제를 18절에서 끝까지, 4장 끝 가까이에서 평가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분열은 경쟁에 의해 주도됩니다. 분열은 교사에 대한 거짓된 충성심, 심지어 좋은 교사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 주도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호소함으로써 분열의 문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사자에 대해서만 분열된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그들의 수사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피와 희생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적 은유에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은유는 구약성서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메시지와 은유는 동물 희생이 그런 종류의 구원의 그림이었던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궁극적인 희생이 됩니다. 그것은 덧붙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에서 시작되어 1세기에 일부가 된 은유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와 인간 희생이라는 개념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은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에 맞지 않았고, 고린도인들은 그 아픔을 느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무효화하려고 했습니다.

가짜 인간 지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힘듭니다. 당신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국제적으로 여행했지만, 제 주요 문화적 존재는 미국 내에 있었습니다. 저는 4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아기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 아마도 30~40년 동안 유대-기독교 윤리, 유대-기독교 가치관을 강하게 받아들였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크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 몇몇 곳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공감하고 인식했습니다.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미국 문화는 유대-기독교적 사고에서 크게 끌어온 것이 아닌 가치에 의해 지배됩니다. 일부 잔여 조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에서 정치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는 거짓말쟁이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종자들을 생각합니다. 끔찍하죠, 그렇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끊임없이 거짓말과 탐욕,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걸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오늘 워싱턴 DC에 들어왔다면, 그들은 마치 예수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채찍을 들고, 시스템을 타락시킨 환전업자들을 몰아냈을 것입니다. 슬픈 상황이고, 저는 이 나라가 세상에서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만든 것들을 포기하기 전에 어떻게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많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과 관련하여 잠시 다른 곳에서 살면서 빈곤을 보고, 폭력과 인종 청소에 이르기까지의 인종적 증오를 보고, 전쟁을 보고, 그저 소문이 아니라, 가끔씩 일어나는 테러 행위가 아니라, 전쟁 문화를 봅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가장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구분에서 생각했던 이 문제에 대한 수사적 평가가 있습니다. 26~31장에 있는 가짜 인간적 지혜와 인간적 교만. 여러분은 직접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들이 들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의 중간에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앉아서 큰 소리로 읽고 들어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시간을 내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읽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일부를 읽어줄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텍스트들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31장을 읽어 볼게요. 1장 26절입니다. NRSV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부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지혜가 또 있습니다.

강력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위도 없었습니다. 고귀한 가문 출신도 많지 않았지만, 신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데 조심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어리석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그것은 세상의 규범에 따르면 당신은 별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의회, 상원,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독교 순교자들의 가능한 맥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기독교 순교자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중동,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에 대해 많이 듣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위해 죽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정죄가 내려왔는 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졌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에서 낮고 멸시받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택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감소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위, 지위, 지위를 생각해보세요.

고린도의 로마인 고린도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잠깐만요. 지위가 기독교 세계관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제쳐 두십시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처음 네 장에 대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셨나요? 글썄요, 그것은 그 회중에서 큰 소리로 읽혔습니다.

사람들은 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여기 내가 있다. 큰 인물이 되려고 뛰어다니며 그 과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평가합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에 호소함으로써 그것을 평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지, 우리에게 거짓된 고양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58페이지를 기억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과거를 설명한다. 당신은 핫샷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현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바울이나 베드로, 심지어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자랑하세요. 그것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이었지만요.

게다가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는 그가 우리가 메시지에 대해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그들이 실제로는 그들만의 생각으로 바울을 만들어냈고, 그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바울의 개인적인 모범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모범은 윈터가 그 시대의 대중 연설가에 대해 묘사한 것과 어떻게 대조되는가? 그 시대의 대중 연설가, 즉 고린도에 왔을 연설가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선물을 가져오고, 경의의 특정 측면에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높이며 왔을 것이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았다.

듣고 싶으신가요? 듣기 좋네요. 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나는 지혜의 높은 말로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문화화하지 말고, "얘, 나는 말을 잘 못하잖아. 내가 말을 잘하면 이걸 어기고 지혜의 말을 쓰게 될 테니까."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가 지혜의 고상한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는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는 고상한 방식으로, 좋은 어휘와 강력한 연설로 그것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무지함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세상이 가져올 모든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약함과 두려움과 큰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한 직후에 고린도에 왔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철학자처럼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구타당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너무 구타당해서, 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그러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할 거야. 솔직히 그런 종류의 설명의 기원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말하자면, 그건 헛소리야.

헛소리야. 뭐든 자기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쓰는 건 미친 짓이야. 이 단어들은 그런 뜻이 아니야.

바울은 아테네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겼습니다. 개종자들을 보세요.

개종한 아레오파기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지도자였습니다. 오, 맞아요, 그들은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많은 목소리들 중 하나의 목소리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바울에게 절을 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시카고 대학이나 홍콩이나 이 세상의 세속적인 교육의 보금자리인 어딘가에 가서 간단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쫓겨났지만, 그 후에 한두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에 대해 더 듣고 싶다고 말했다면,

내가 실패자처럼 느낄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기쁩니다. 바울이 "나는 약함과 두려움과 큰 떨림으로 너희에게 왔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테네에 대한 해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가치와 경외감에 대한 바울 자신의 자기 인식에 대한 해설입니다. 내 연설과 선포는 그럴듯한 지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들은 그럴듯한 세속적인 지혜의 말이지만, 영과 권능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건대,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당신은 설교를 들었어. 시에서 세 가지 요점을 듣지 못했어. 지난주 신문에 나온 여러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

당신은 인터넷 농담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당신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확신시키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영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 글을 읽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자신의 환경에 문화화시킬 것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힘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해야만 자신의 문화와 세속적인 지혜를 가져와서 노출시키고 평가를 위해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가 사역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보통,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종 우리가 그들이 좋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썄요, 우리는 사람들이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보와 어리석은 무리가 되고 싶지 않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세상의 CEO들의 방법론과 효과가 있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실용주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확산시키고 세우도록 허락하는 대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전해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도록 진정한 설교와 진정한 내용을 다시 설교단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성경적 윤리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높아집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분열된 태도가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시다.

칼버트는 그의 글에서 바울이 지중해 교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중해 교사가 된다는 것은 추종자들이 있는 교사가 추종자들이 그 교사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일종의 난해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2장 6절에서 16절로 넘어가면서 그것에 약간 의존하여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부분을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난해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중해의 난해한 것은 아니지만, 겉보기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풀은 신비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들은 신비를 주장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신비는 구약성경과 하나님의 계속되는 계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탐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첫 네 장에서 강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선포에 관련된 성경의 본질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6-16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바울의 메시지의 출처와 권위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6-16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사역의 본질과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사실, 6-16절을 보면, 이 구절의 바로 중간에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난해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계시의 내용에 따라 살아야 하는 유대-기독교 역사의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의 과정은 인간의 귀납적 분석을 초월하는 지혜를 낳고 모든 창조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위한 철학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러한 구분과 세속적 지혜는 "음, 그러면 바울,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똑똑해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지혜는 어디서 얻었는가? 바울은 2장 6절부터 16절에서 이에 답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1장부터 4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본 후, 지혜로운 교사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와, 이게 흥미진진하죠? 2:6~16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사명에 대한 변증에 있어서 일종의 분수령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폴, 당신은 어디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똑똑하게 만드는데요? 폴이 그들에게 말할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폴이 말해요. 모든 것이 정말로 모이는 메시지의 의미에 대한 신의 계시예요, 그리고 당신은 더 잘 들어야 해요.

Walter Kaiser의 A Neglected Text in Bibliology Discussions, 1 Corinthians 2:6-16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Westminster Journal에 게재되었습니다. 58페이지에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만 읽어보세요. 전부 읽어도 되지만, 특히 고린도전서 2:6-16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세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구절이 1장에서 4장까지 어떻게 위치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검색하면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널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에 연결되어 있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듣는 사람들의 70~80%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 이 기사를 찾아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58페이지에서 멈추겠습니다. 여기는 11번째 강의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1~4장을 다 마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루는 이 섹션, 인식론에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실천에 대한 유일한 지침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대와 장소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11강, 클로에의 집에서 온 구전 성명에 대한 바울의 응답,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입니다.